

테마칼럼

공간과 일상

문학의 향기

다자원 시장

박력과 병행

선택 뒤에 오는 것



이기호

2000년 이후 소설에서 선택이 사라졌다. 생각해 보라 아무도 없는 편의점에서 어떤 선택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요즘 우리나라 소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들 계시는가? 교사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 바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다.

소설 속 주인공들의 직업 변천사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것이 우리시대 도시민적 삶의 변천사와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지, 금세 알게 된다.

모두 시대의 정확히 일치되는 발걸음들이었다. 그 안에서, 지주와 소작농, 사주와 노동자, 노동자와 노동자, 상사와 부하 직원들은 서로 갈등하고 욕망했다.

만 했고, 그 '선택'의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소설의 핵심 플롯이었다. 파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동료를 배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데, 그러던 것이 2000년대에 진입한 뒤부터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즉, 소설에서 '선택'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즈음의 소설 속에선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근래에 나온 여러 소설 속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아예 직장이라는 친구들이 없다.

때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타인도 등장하지 않고, 직장도 없고, 가족과도 소원하니 갈등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

사회적 실업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우리는 계속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방안이라고 주장해왔다.

어려서부터 '선택'이 아예 막혀버린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뻔하다. 초월하거나, 사이코패스가 되거나.

<소설가 광주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균형' 빠진 지역발전정책 재검토해야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13개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이 엮고 제 서울에서 지역균형발전 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결의문은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가균형발전을 담은 헌법정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비수도권의 위기감은 심각하다. 정부는 최근 건설업 부양정책에서 수도권 투기자주와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해제키로 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를 구체화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변경된다. 명칭부터 '균형'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특별법의 '목적과 정의'에서도 '지역간 불균형 해소'나 '지역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삭제된다.

정부의 지역발전 핵심전략은 '5+2 광역경제권'이다. 광역경제권간 경쟁과 협력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지만 '지방'이 수도권과 동등하게 경쟁하라는 것은 말이 될 수 없다.

정부는 광역경제권 등 지역발전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균형'이 빠진 발전전략은 수도권 특혜시비를 낳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키울 수밖에 없다.

금융위기 '직격탄' 맞는 광주·전남 경제

금융위기의 후폭풍이 광주·전남지역 경제에 휘몰아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광주지역 대표적 기업인 기아자동차의 수출 물량이 급감했고 지역 전략업종인 광산업과 조선업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은 대혼란에 빠지고 있다. 증시는 폭락을 거듭하며 1,000선도 안심할 수 없게 됐다. 어제 코스피지수는 전일보다 84.88포인트(7.48%)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은 3일간 93원이나 올랐다. 환율은 어제 45.80원 폭등한 1,408.80원을 기록했다.

환율 등 금융시장은 공황상태다. 지역 경제계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광주지역 대표적 기업인 기아자동차의 수출 물량이 급감했고 지역 전략업종인 광산업과 조선업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역경제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지역 경제의 파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기업들이 구조조정과 비용절감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지만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는 현실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역경제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지역 경제의 파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無等鼓

한국의 대표 술을 꼽으라면? 지금은 소주가 대중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국민 술이지만 막걸리도 빼놓을 수 없다.

막걸리는 가장 오래된 역사이다. 과거 한국이 농경사회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놀랄 수 없는 술이다.

문화적인 관점에서 막걸리는 한국의 대표 술로 각인돼 있다. 한국에 막걸리가 있듯 중국하면 알코올 5도를 넘나드는 '바이주'가 떠오르고, 일본은 사케가 유명하다.

막걸리는 한 때 서민에게서부터 대통령까지 즐겨 마시는 술이었다. 가난한 농부들은 양재기에 가득 넣는 한 잔의 막걸리로 허기와 시름을 달래곤 했다.

1979년 10월 26일 '최후의 만찬'에서 유명을 달리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도 막걸리 애호가로 소문났었다.

스리갈' 병이 남아있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눈동에서 혼로들과 막걸리를 나누던 모습은 아직 많은 이의 뇌리에 남아 있다.

막걸리가 다른 술과는 달리 간장을 보호하고 혈압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최근 강진의 한 주류업체가 복분자 막걸리와 동동주를 일본에 수출했다.

분자를 첨가해 일본인들의 취향에 맞추고 유리병에 담아 위생적으로 포장했다. 이미 일본에 막걸리가 진출했으나 우리나라 토속 정서를 대변하는 남도 막걸리가 수출된 것은 의미가 크다.

지역경제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지역 경제의 파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기고



오윤경



앞에 걸려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희망이 없는 최후의 시술법이라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방사선 치료는 경우에 따라 수술보다 효과가 뛰어난 수 있다.

mensional conformal radiation therapy)는 컴퓨터단층촬영으로 얻은 영상을 재구성해 환자의 신체 내부를 들여다보듯이 종양을 3차원적 형상으로 만든다.

방사선 암 치료의 빛과 그림자

전리방사선은 방사선의 에너지가 충분히 커서 원자의 궤도에 있는 전자들이 탈사켜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효과를 낸다.

중상 완화 목적의 고식적 방사선치료는 단기 치료로서, 하루 치료선량은 약 3Gy정도로 약 2주간 치료를 받는다.

전문들이 방사선 치료를 '양날의 칼'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하지만 방사선 치료를 하면 부작용은 심하고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환자들의 생각은 암 치료의 결정적인 방해요소가 된다.

방사선 치료의 최대 목표는 치료하고자 하는 암부위에 최대한 많은 양의 방사선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주변의 정상 조직에는 방사선이 최소한 적게 조사되도록 하는 것이다.

할부 남은 자동차 폐차 후 검사료·세금 부과 부당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동차 업계에서도 다양한 할부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고 있다.

그나마 정기검사는 연장이 되지않던 정밀검사는 연장이 되지 않아 검사료나 세금은 지속적으로 쌓이게 된다.

기고



문덕형

지난 9월14일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사태 이후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산되면서 세계경제는 지금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경제위기 극복에 힘과 지혜 모으자

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대응력이 약한 지역 중소기업들이 환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수입원재 가격 상승으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용경색 등의 영향으로 자금난과 금융부담이 커지면서 지역경제의 전방이 매우 불투명해지고 있다.

으로 이룩한 비약적인 성장세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국의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고는 안된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경제위기 극복에 힘과 지혜 모으자

지역 대기업은 고환율의 부담이 고스란히 중소기업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단가의 조정, 납품대금의 조기결제 등을 통해서 협력업체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는 것이 절실하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적극적인 위기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세를 견인하는 경제주체로 거듭나도록 원가절감과 기술력 강화, 판매망 확충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농어민 연금·건강보험료 부당 수령자도 일벌백계해야

정부의 차관과 고위 공무원,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불법으로 받아 가로채 온 나라가 시끄럽다.

농어민 연금·건강보험료 부당 수령자도 일벌백계해야

촌 주민에게 보험료의 50%를 감경해주는 제도이다. 또 농어민연금보험료는 농어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광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